

업무보고

부서 : 자산관리팀 직위 : 부장(직무대행) 성명 : 곽재성 전화번호 :

등록번호: 총무처-803
결재일자: 2018.01.17.
시행일자:
공개구분: 대시민공개
문서보존기간: 10년
수신자: 내부결재
제 목: 내용연수 일원화안 서울시 승인관련 부시장 보고(출장기록 보고서)

부장(직무대행)	팀장	처장	실장
곽재성	김완수	이권수	01/17 김대식

- 목적 : 내용연수 일원화(안) 서울시 승인관련 부시장 보고
- 일시 : 2018.1.15.(월) 16:30 ~17:00
- 장소 : 서울시 행정1부시장 사무실
- 출장자 : 경영지원실장, 총무처장, 자산관리팀장, 곽재성 부장
※ 서울시(배석) : 공기업과장 임출빈, 박경원 주무관

□ 면담 내용

○ 설비자산 내용연수 일원화 추진 현황 보고

- 추진경과, 내용연수 조정(안) 중 이견 사항, 내용연수 조정 근거, 회계감사 법인 검토 의견, 적용법규, 서울시 승인불가 사유에 대한 소명 등 보고

○ 부시장 의견

- 승강설비 내용연수를 20년에서 25년으로 변경할 경우 통상적으로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설비교체가 이루어지고 있어,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공공기관의 입장에서 안전을 담보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 보수적으로 내용연수를 결정할 필요가 있음.
- 통합 전 통추위에서 내용연수 일원화를 검토하여 결정할 때도 감가상각비 등을 심사숙고하여 결정한 바 있어 당초와 커다란 변동사항이 없다고 판단됨.
- 대략 5,000억 원 이상 결손이 발생한다고 했을 때 600여억 원의 추가 손실을 보이더라도 공사에 결정적 위기를 초래하는 영향이 없으므로 내용연수를 변경하면서 까지 결손관리를 할 필요는 없음.
- 승강설비 같은 안전설비는 회계적 관점으로만 보아서는 안 되며, 회

계기준과 교체시기가 별개로 이뤄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.

○ 서울교통공사 의견

- 승강설비의 내용연수 변경 사유는 기술 통계기법을 활용한 실 사용연수 추정(26.35년), 엘리베이터와 휠체어리프트의 신기술 적용으로 인한 기대수명 연장 반영, 관리수준 향상(별도 관리조직 운영) 등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합리적인 내용연수(25년)를 도출하였음.
- 시설, 설비의 교체주기는 내용연수만으로 판단하지 않고, 자산종합평가, 투자타당성 검토, 안전관리 진단 등 별도의 지표로 관리하고 있음
- 내용연수 조정이 법적 제한사항 등 변경이 용이치 않아 통합을 계기로 실 사용연수, 관리수준 등 종합적 분석을 통해 장기적 관점에서 최대한 현실에 부합하는 내용연수로 조정코자 마련한 안임.
- 승강설비의 안전 담보와 체계적 관리를 위해 도시철도기관 최초로 별도의 전담조직인 승강기관리단을 운영하여 안전진단, 성능향상, 유지보수 및 교체계획 수립 등 승강설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.

□ 결론(부시장)

- 교통공사가 다각적인 분석과 심혈을 기울여 조정안을 마련하였으나,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,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승강설비의 내용연수는 최소한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,
- 차후 일련의 불안요소가 해소된다고 판단되면 종합적인 기능평가 등을 통해 서울시에 요청을 하여 내용연수 변경을 하는 것으로 결론. 끝.

